

목양칼럼

한 겨울에 핀 봄날의 기쁨

지난주, 멀리 사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주 오랜만이었습니다.
 만난 지는 십 수년, 통화한지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전화하는 즉시 우리는 그 오랜 시간이 서먹하지 않게
 함께 시간여행을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물론 과거의 이야기
 그리고 미래의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직 녹슬지 않은 저의 “아재 개그” 를 간간히 섞어 이야기하니
 친구는 스마트폰이 깨지듯 웃었습니다.

그 친구는 노숙자 사역을 합니다.
 그 친구가 위로해 줄 사람은 많아도
 그 친구를 위로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힘들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 날 친구와 함께 터뜨린 웃음은
 분명코 한 겨울에 핀 봄날의 기쁨이었습니다.
 그 날 저는 박인수 씨가 부른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많지 않아도
 그리고 자주 만날 수 없어도
 나에게 친구가 있음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멀리 있어도 가만히 이름 불러볼 수 있는
 친구가 나에게 있음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내 좋은 친구를 만날 때면
 웃음마다 봄날 기쁨입니다
 보고픈 친구를 생각할 때면 그리움은
 잔잔한 행복입니다

바쁘셔도 잠시 옛 친구에게 전화해 보세요.
 그와 함께 웃노라면 한 겨울인데 봄날의 기쁨을 맞볼 것입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040 中文 (347)965-0343 Fax (718)886-5555 http://www.kapcq.org

- | | | | |
|-------|--|------|-----|
| 원로목사 | 장영춘 | 담임목사 | 김성국 |
| 부목사 | 김도현/QPEM (347)450-7736 | | |
| 전도목사 | 이신은 (646)220-8324 다민족선교사 V, Son/Rm (917)940-0596 천위희/CM (347)965-0343 전성호/청년선교부 (201)370-3455 | | |
| 전도사 | 이양미/1교구 (516)717-8720 함미희/2교구 (917)359-2857 고부영/3교구 (917)423-5298 이소영/새가족(347)610-5399
소유영/행정 (917)318-7030 최진식/ (646)887-7419 | | |
| 교육전도사 | 이명옥/영아부 (646)327-6438 강지영/유아부 (718)801-2339 김정민(인턴) (914)648-9996 전진영/유치부 (267)476-2042
평정은/유년부 (347)804-5366 이오스틴/초등부 (631)617-1339 김성은/중등부 (347)906-2003 차평화/고등부,EEEP(703)819-8785
손요한/중국어교육부 (646)789-1118 협력전도사 윤원상(201)681-7899, 계화자(646)641-8944 | | |
| 직원 | 정진규/관리 (646)651-7255 홍현숙/서무 (201)759-0820 Shen de Guia/QPEM (917)254-7455 오재혁 (646)662-9015 | | |
| 찬양대 | 1부 / 임마누엘 찬양대 2부 / 호산나 찬양대 3부 / 시온 찬양대 4부 /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 / 최진식 지휘 / 최경희 지휘 / 소유영 지휘 / 강혜영
반주 / 송소영 임세현 반주 / 김정윤 나윤주 반주 / 최미희 반주 / 이승은 | | |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 - 믿음과 권세가 풍성한 교회

말씀으로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원로목사 장영춘
 PASTOR EMERITUS, REV. YOUNGHOON CHANG

담임목사 김성국
 SENIOR PASTOR, REV. SEOUNG KOOK KIM

주후 2019년 1월 20일
 제 45-3호

주일예배 (1,3부)

1부 / 오전 8:30 김성국 목사
 2부 / 오전 10:30 김성국 목사
 3부 / 오후 12:15 김성국 목사
 4부 / 오후 2:00 김성국 목사

* 예배선언	CALL TO WORSHIP		사회자
* 참회와 경배	CONFESSION & ADORATION		다같이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 찬송	HYMN	36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1부 / 최원일 장로 3부 / 남형욱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히브리서 10:32-39	사회자
찬양	CHOIR	비추소서 예수여 야베스의 기도	임마누엘 찬양대 시온 찬양대
말씀	SERMON	믿음으로 사는 자	김성국 목사
헌금 및 찬송	OFFERING & HYMN	384	다같이
광고	ANNOUNCEMENT		사회자
* 찬송	HYMN	552 / 1, 4절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치유와 축복기도	설교자
* 표는 일어섬			

헌금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및 모임

주일예배	1부	오전 08:30	본당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15	
	4부	오후 02:00	
	QBC	오후 02:15	
	영어	오후 12:00	양순관
	중국어	오전 09:30 오후 02:30	
	러시아어	오전 08: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본당
수요 기도 예배	수요일	오후 8:00	
새가족 환영 모임	화요일	오후 7:30	친교실
전도폭발훈련	화요일	오후 7:30	고등부실
제자, 영성 훈련	목요일	오후 8:00	

영어부	1부 주일 오전 10:30 2부 주일 오후 12:15	영어부실(지하)
유아부		유아부실(2층)
유치부		유치부실(2층)
유년부		유년부실(4층)
초등부		초등부실(3층)
중등부	주일 오전 10:30	중등부실(4층)
	토요모임 오전 9:00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고등부실(3층)
	금요모임 오후 7:00	
청년 대학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유아부실
청년 선교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본당

출석

1부 예배	325	러시아어 예배	44	영어부	23	중등부	63
2부 예배	387	청년 선교부	84	유아부	42	고등부	53
3부 예배	338	제직 수련회	1559	유치부	31	청년 대학부	26
4부 예배	250	새벽 예배	934	중국어 교육부	23/22	교회 학교 예배	440
영어 예배	185	수요 기도 예배	145	유년부	82	주일 낮 장년 예배	1959
중국어 예배	346	새가족 환영회	17	초등부	75	주일 낮 총계	2399

1월 봉사위원

책임 장로: 김수산 장로

헌신기도	황주현 장로	황인섭 장로	허경화 장로	정길표 장로
책임권사	민미숙 권사	이정숙 권사	이경애 권사	청년부
실내 안내	최경선 오영자 홍지혁 강석춘 김동순	이정훈 임승룡 허영미 문인숙 이미셀	오성태 장지숙 정민영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김선의 조한결 신예지 윤국현
헌금 위원	윤영신 심인보 조규옥 윤순자 장현미 차광혁 채송자 강석춘	이지수 허영미 문인숙 임승룡 김미권 전용력 전인자 송명남	심원희 오성태 박수자 박석미 한원희 심화숙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신예지 조한결 윤국현 박재상 소승우
차량 안내	이영호	정사용	윤지현	최성호

화요일 새가족 환영: 루디아/여호수아 주일식사: 교포부(다음주: 청장년부)

파송, 협력 선교사

파송선교사: 알마티퀸즈장로교회 김관중 선교사 / 캄보디아 이일훈 선교사 박수영 선교사

협력선교사: 미주크리스천신문 / 한인세계선교협의회 / 단비TV / 여운세(캄보디아국제선학교) /
국제장애인선교회(미국) / 강인중(케냐) / 홍황식(파키스탄) / 김성일(터키) / 박선숙(미국 장애인) / 최득신(프랑스) /
김명희(미국 할렘) / 최동훈(케냐) / 이동철(온두라스) / 이갈렘(중국) / 김호동(불가리아) / 류동하(한국 경남 통영시 사랑도)

금주의 가정예배

2019년 1월 셋째 주

제 77 문 : 떡과 잔을 먹고 마시므로 몸이 양육되고 새롭게 되듯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성도를 양육하고 새롭게 한다고 어디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습니까?

답 : 주님의 성만찬은 다음과 같이 제정되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부서진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약속은 바울 서신에서도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나.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월- 사도신경 / 찬송가 366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사도행전10:17-23

베드로의 의문은 곧 풀렸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고 성령님은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곧 자신이 본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깨달았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지에 대해 온전히 깨달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을 받아들이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에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고넬료 역시 천사의 지시에 ‘곧 순종했습니다.(33절) 고넬료와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화- 사도신경 / 찬송가 569장/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사도행전10:24-33

고넬료는 가족과 친지를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 모아 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결국 고넬료는 그의 집안사람들과 친구들에게 복음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케 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장교가 피 지배국의 일개 어부였던 사람에게 절을 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내신 주님을 경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고넬료의 이 같은 겸손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여 줍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합심 기도/ 주기도문

수- 사도신경 / 찬송가 285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사도행전 10:34-38

베드로는 고넬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받은 자신들만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외적

인 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 마음에 따라 사는 삶을 보는 분이십니다. 고넬료는 바로 그런 인물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신 것이 그가 구원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목- 사도신경 / 찬송가 286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사도행전10:39-48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체험하고 확신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미리 택하신 자들이었습니다.(41절)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마치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임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그들은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한 내용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었고 곁에 있던 자들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린 것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라” (2:17)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금- 사도신경 / 찬송가 210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사도행전 11:1-10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집안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이방인 선교가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지 못하고 이방인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기존의 틀에 사로잡혀 남을 비판하게 되는데 이는 복음의 확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비판하는 성도들에게 그간의 일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도들은 베드로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서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권위로 사람들의 불만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무조건 자신이 옳다고 우기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온유함 속에서 행해지는 설득의 리더십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우리의 모습이 됩시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토- 사도신경 / 찬송가 196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사도행전 11:11-18

베드로는 그동안 자신과 고넬료에게 있었던 일들이 성령의 인도로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말합니다.(12-13절) 천사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도록 한 목적은 ‘구원 얻을 말씀’ 을 듣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14절) 고넬료와 그의 집안에 성령이 임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1절)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임재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며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이 선물을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뜻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17절) 이 사실을 깨달은 예루살렘 성도들은 드디어 비난을 그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18절) 우리는 복음만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거두시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